

익산시 신청사 건립, 급물살 탄다

국도교통부-익산시-LH, 사업추진 업무협약 체결... 사업모델수립용역 시행 예정

익산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익산시는 24일 LH세종특별본부에서 국도교통부 및 LH와 지난해 12월 확정된 국가정책사업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을 통한 신청사건립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참여기관 간 역할 분담과 협력 증진을 위한 것으로 신청사건립의 본격 추진이라는 큰 의미가 담겨 있다.

국도교통부는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총괄기관으로서 다양한 리뉴얼 사업방식 발굴을 위한 사업모델 수립

을 지원하고, 사업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각종 행정적 지원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익산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청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청사 건립계획을 수립 반영한다.

또한 LH는 각종 개발사업의 노후우를 제공하여 지자체 여건 및 주민편의,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그동안 시민의견 청취 토론회, 찾아가는 시민 소통마당 등을 통해 신청사건립 공모취지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 해

소를 위해 설명 및 토론회를 했다.

지난 3월 28일에는 익산시와 익산시의회·LH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익산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청사건립 계획, 타당성 조사 분야의 관계 전문가들의 용역 수행계획을 듣고 토론회를 통해 방향을 정립한 바 있다.

국도교통부와 LH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리뉴얼사업에 대한 사업모델수립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익산시에서 현재 추진중인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내용을 공유·결합하여 익산시민의 특화된

사업계획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정현을 시장은 "열악한 지자체 재정 상황을 보완할 사업 추진방향 설정과, 지자체 공유자산을 활용한 적극적인 사업모델 발굴, 리뉴얼사업과 연계될 국가지원 정책사업의 접목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만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노후되고 안전도가 결여된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어려운 첫발을 내디딘 만큼 시민 모두와 지역정차권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야외수영장 어린이 놀이시설 '인기'

군산시는 여름에만 이용할 수 있는 야외수영장을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시설로 탈바꿈시켜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터 운영하고 있는 야외수영장 어린이놀이시설은 요즘 들어 주말 수백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군산야외수영장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성인풀 내에 어린이 축구장·농구장, 광장에는 에어바운스 활용한 인공암장, 미끄럼틀, 볼풀장, 트램펄린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야외수영장 부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나들이 장소로 손꼽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아(미취학)는 2,000원 초등학생 이상은 3,000원의 저렴한 입장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음식물 반입도 가능하다. 또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정기휴장일인 5월 7일, 8일, 9일, 10일 휴장으로 정상 운영하고 5월 8일 휴장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농기센터 농기계 안전교육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관내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이용하는 농업인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4회에 걸쳐 농기계 안전 및 현장이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농기계 안전 및 현장이용교육은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농기계 작업 사고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안내,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현장이용기술 등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진행했으며, 전북교통문화연수원의 김승복 강사를 초청해 도로에서 일어나는 농기계 안전사고 유형과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안전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관내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이용하는 농업인 4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4회에 걸쳐 농기계 안전 및 현장이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업인들의 이해를 도왔다. 농기계 안전사고는 월별로는 5월·7월·10월이, 일별로는 오전 10시·오후 4시경이 발생빈도가 높으며, 농기

계 사고의 69.6%는 작업 중인 논과 밭에서 발생하고 운전 부주의로 농기계 가 넘어지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배승철 2호 공약... 보건분소 신설

배승철 전북도의원 예비후보(사진)는 시민건강 100세를 향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최근 계속되는 환자와 미세먼지로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하에서 신속한 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서부권에 보건분소를 신설하겠다는 시의적절한 공약을 내놓았다. 실제로 서부권(모현·송하·오산) 인구는 2011년 4만 7천명에서 2017년 5만9,000명으로 6년 사이에 1만 2천명이 유입되어 인구밀집지역으로 분류되어 타 지역에 비해 질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 시내버스 무료환승 시간 60분으로 확대

5월 1일부터

익산시는 주차난 해소와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자가용 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를 이용한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를 5월 1일부터 기존 30분에서 60분 이내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내버스 무료환승은 버스를 갈아탈 때마다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에서 직접 가는 노선이 없거나 빠른 노선

으로 가기를 원할 경우 버스에서 내릴 때 교통카드를 하차단말기에 체크 후 60분 이내 환승을 할 경우 추가요금 없이 1회에 한해 무료로 이용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영등동이나 부송동에서 합월 방향으로 가려던 원대병원 앞에서 하차 후 60분 이내에 합월 방면 차량으로 환승할 경우 이용객은 1회만 요금을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시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8년 1월부터 무료 환승 30분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지난해는 147만 건에 19억원을 지원하는 등 시민들의 비용부담과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무료환승 시간이 확대될 경우 배차간격으로 환승에 어려움을 겪었던 농촌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돼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원광대 '인문인물열전' 인문강좌

원광대학교가 4월 19일부터 익산에서 시작한 '인문백제 인문강좌'와 함께 25일부터는 전주에서 '인문인물열전' 강좌를 진행한다.

원광대 HK+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전주문화통신사협동조합 협력으로 이루어진 이 강좌는 4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전주문화통신사 2층에서 2시간 동안 펼쳐지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용을 타고 백제투어' 무료 체험 신청

5월 2일까지 선착순 400명 모집... 익산서동축제 기간중 운영

용을 타고 익산백제로 체험여행! 선화공주 14K금반지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익산시는 서동축제기간 중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콘텐츠 통합지원 공모사업 일환으로 익산시투어와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용을 타고 백제투어'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익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익산역에서 출발하는 순환형 익산시투어와 서동축제를 연계하여 관광객들이 무왕의 도시 세계유산 백제왕도 익산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백제 제30대 무왕 서동의 탄생설화에 나오는 용을 형상화한 마룡버스를 타고 백제왕도 세계유산 유적지인 미륵사지와 왕곡리유적, 무왕과 신화공주가 잠들어 있는 쌍릉, 마한박물관 등을 스토리텔링 해설을 들으며 둘러본다.

특히 인연의 끈 만들기, 백제 무왕 서동의 지체체를 담은 왕공체전 개최,

금반지 찾기, 유물캐릭터 제작 등 코스마다 색다른 체험을 무료로 할 수 있으며 서동축제장에서 다양한 상설 체험과 부대행사 등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용을 타고 백제투어 운영기간은 5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이며 1일 2~3회 총10회에 걸쳐 1회 40명 기준 총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익산역에서 순환형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미륵사지에 하차하여 마룡버스 접수확인 부스에서 확인 후 이용하면 된다.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는 5월 2일까지 소정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문자 또는 이메일(mhkg01@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단, 1회당 선착순 40명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공감 공간(담당자 070-8223-0504/010-9042-0288) 또는 (재)익산문화재단(담당자 063-843-881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어린이 행복돌출산

풍향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수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익산 Dream Hub GUNSAN

군산 GUNSAN CITY